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마음에 틈 있어야 사랑과 여유 생겨요”

책향기를 따라가니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책은 사람이 있어야 책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읽는 사람이 있어야 책은 행복하다. 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은 언제나 향기롭다. 책 속의 진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현장을 따라가는 기획 ‘책향기를 따라가니’에서는 출판기념회, 책과 사람의 만남, 저자와 독자의 대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법현 스님 '부루나의 노래' 출판기념회 현장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9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건물에서 태고종 열린선원 법현 스님은 들어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고 반갑게 맞고 있었다. 이날은 스님이 최근 펴낸 책 <부루나의 노래(운주사)> 출판기념회와 매년 음력 설마다 시행하는 명절차례시연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종단과 종교를 넘어 스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300여명의 손님이 들어서는 불

례의식의 핵심이니까요.” 스님은 불교차례의식의 역사적 근거로 김부식의 <삼국유사> 표훈 대덕조에 실린 신라 경덕왕과 충당사의 대화 내용 중 “차를 드리고 내리었다”는 내용에 주목하며 이것이 차례의 효시라 역설하기도 했다. 스님의 설명 후, 이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이 직접 불교차례의식을 시연해 보는 순서가 이어졌다. 스님은 “불교차례의식은 전통차례의식과 각 가정의 상차림법 등을 존중하되 의식만큼은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차를

룬 했을까. 부루나 존자는 설법을 통해 포교를 했다. 여기에, 스님이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왜 ‘부루나’일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 풀린다. 스님은 잘 알려진 대로 서울 갈현동 중앙시장 상가 건물 내에 2002년 설립한 ‘열린선원’의 원장이다. 이를 그대로 활짝 열어놓고 저자거리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다 스님은 “포교원이 길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무엇 할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쉽게 전달하는 존재가 없다면 널리 전파될 수 없을 터다. 스님의 책 제목은 그 ‘부루나’를 따르는 지극한 생활포교에의 포부가 아닐까. 스님과 8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상열 목사도 “법현 스님은 대중과 한 몸처럼 살아오면서 옳은 뜻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라며 “스님이 부른 ‘부루나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부루나의 노래>를 출간하게 된 데는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 사장의 공이 크다. 김 사장이 법현 스님의 필력을 알아보고 ‘작가’로 발굴했기 때문이다. “법현 스님 개인은 활발히 활동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태고종 스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어 궁금해 하는 불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스님의 생활적 부분, 생각들을 정리하되 불교의 가르침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지요.” 스님이 출판기념회와 명절차례시연 행사를 함께한 것도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을 연계하는 부분에서 뜻이 맞았을 것이다.

“모든 생활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불자들이 불교차례의식에 대해 알고 시연해보도록 불자다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마음에는 ‘틈’이 있어야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현대인들의 각박해진 마음에서 ‘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사진=김장진 기자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이 제6회 명절차례시연 및 '부루나의 노래'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된 불교명절차례의식 중 차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

교식 명절차례시연에 대한 법현 스님의 특강이 진행됐다. 명절차례시연은 올해가 6회였다. “유교·개신교·가톨릭 등 이웃 종교에는 명절의식이 있는데 불교는 명절상용의식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들은 후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불교적이면서도 가족 모두 참여하는 불교식 명절차례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행동양식은 다를지라도 차례상에 반드시 ‘차(茶)’를 올리는 ‘예(禮)’를 갖추자는 것이 불교명절차

올리는 시-조상 영가를 모시는 의식-공양 올리는 의식-추모의식-공양 진언-마무리 진언-발원 등으로 이어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부루나의 노래>에 대한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이번 출간된 <부루나의 노래>는 법오집을 제외한 스님의 첫 간행물로 4부 약 70여 편의 글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분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을 통해 써온 글 중 쉽고 감성적인 글만 따로 모아 실었다. 그래서 속가 아버지께 대한 아스라한 마음, 시봉했던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등 인간적인 마음이 녹아있다. 책 제목에 왜 ‘부루나’ 존자를 거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마음

혜성스님 편저 | 삼육출판사 | 1977

장용철(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내 신심의 발원지, 청담스님의 '마음'

내 시심(詩心)의 발원지는 강촌(江村)이고, 내 신심(信心)의 발원지는 청담스님의 말씀집인 <마음>이란 책이다. 강촌이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는 강촌에서도 골짜기로 한참 들어간 ‘나가지’란 마을에서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화천민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 유년시절, 숭배 풍지 같은 나의 집에 책이라고는 아버지가 동네 아낙들을 모아놓고 읽어주던 <춘향전> 등 고대소설과 삼촌들이 보던 <삼국지> 등이 고작이었다. 대물림된 가난과 사방



시심을 주고 받던 소녀에 받은 책
청담 스님의 '무채색'에 빠져들어

나를 스님의 무채색 '마음'에 빠져들었다.

이 꼭 막힌 산들로 늘 영육이 허기지고 갑갑했던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다. <자유 의 벗> <어깨동무> 등 수백권의 책들이 소장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에 파묻혀 살면서 거기 있던 장서들을 다지는 대로 읽었다.

내 인생의 시심은 도라지꽃처럼 묵정밭에서 그렇게 자라났다. 내가 북한강을 건너본 것은 도회지인 춘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였다. 안개가 출렁이는 붉은 원고지 칸마다 시심을 채워 넣으면서 나는 북한강 물살보다도 거친 도시의 물살에 또 다시 시달려야 했다. 날마다 ‘말죽거리 잔혹사’를 연 출하던 친구들을 피해 초식동물처럼 움츠렸으며, 음유시인이었던 아버지의 느닷없는 좌절과 절망, 또 동백꽃처럼 붉던 흥동가의 눈부심 등으로 하여 나의 사춘기는 온통 하얀 불면이었다.

업장소멸의 시기였을까. 나의 초년 운세는 그렇게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문화소년이 되어 여기저기 설익은 허명을 입적하면서 부터 마침내 인생의

그것은 아직 채 알지 못한 내 성장통을 일시에 날려 버리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내 영혼은 놀라움을 수 없었다. 무명을 후려치는 벼락을 맞은 것이다. 마음이란 것이 있었나... 그놈이 나의 주인공이라니... 청담스님이 들려주는 마음 법문은 그때까지 마음을 신체의 한부분 정도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월천제’였던 한 중생의 미혹을 깨트리는 것이었다.

노승을 스치는 바람처럼 파고드는 청담스님의 법문에 나는 한기를 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그 길로 나는 인연 닿는 법당을 찾아갔고, 그곳은 일체유심조를 지나쳐 ‘이 마음을 여실지 알라’는 ‘여실지자심(如實知心)’을 가르치는 밀교의 법당인 심인당(心印堂)이었다.

책세 두꺼운 표지에 관솔을 같은 노승의 화기(火氣)가 느껴지던 책. 내 신심의 발원지인, 구원의 책 한권을 보내준 소녀는 누구였을까. 먼 아승지경부터 인연 맺어왔으나 금세에도 그저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인 것일까.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흠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흠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제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트Q (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	-----------------------	-------------------------------	--------------------------------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	--------------------	----------------	---------------	--------------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대)
가림사당 가림APT 영미스퀘어 1번출구 정실예고
하남류현전시장 (02) 3402-2520
가림사당 가림APT 영미스퀘어 1번출구 정실예고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